

대 회 사



전 동 용 (대한 양돈협회 회장)

친애하는 전국의 양돈인 지역 대표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먼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수입개방 결정 충격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전국의 농촌현장 곳곳에서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양돈인 지역 대표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바쁜 농정과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고 양돈인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주신 김종필 대표위원님과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님, 양창식 국회 농림수산위원장님과 국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각계에서 양돈업계를 적극 후원해 주시는 내빈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양돈인 지역 대표자 여러분!

돌이켜 보면, 우리는 지난 20년동안 손발이 부르트는 노력 끝에 불모지였던 양돈산업을 국가의 주요 산업으로 성장시켰고, 농촌의 주요 소득원으로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우리는 위생적이고 품질 좋은 돼지고기를 공급하여 국민 식생활과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 동안 '79년과 같은 혹독한 불황을 여러번 경험하였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여 오늘의 양돈산업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여기 참석하신 양돈인 지역 대표자 여러분들의 자기 희생과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우리에게 더 많은 땀과 피나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시하시는 것과 같이, 그동안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UR협상은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모든 농축산물을 수입개방하는 방향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내년에 냉동돼지고기를 쿼터제에 의해 수입해야만 하고, '97년 부터는 돼지고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축산물이 전면 개방을 해야만 합니다.

한편, 국내적으로 3D 기피현상으로 양돈장에 인력이 부족하고, 님비현상에 따라 신규로 양돈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로 생산비가 높아 양돈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크게 늘어나는 등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돈산업은 국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UR 이후의 생존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양돈인 지역 대표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힘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기필코 양돈산업을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WTO체제에서 국내 양돈산업이 살아남고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몇가지 사항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각오입니다.

첫째, 양돈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쟁 상대국인 미국과 덴마크, 대만에 비해 양돈 생산비가 20~50%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생산비가 높은 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불합리한 제도에서 기인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돈업계는 지난 10여년간 생산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을 위해 100여차례 이상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관계당국에 건의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기자재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주기로 한 당국의 결정이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축산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료에도 부가세 영세율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결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둘째, 가축분뇨는 폐수가 아니라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서 양돈산업을 환경보전형 축산으로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가축분뇨는 유기질 비료로서 산성화된 농토를 개량해 주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축분뇨를 폐수로만 접근해 왔으나, 하루 빨리 이같은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생산성을 높이는 시설이 아닌 만큼,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공해방지와 자원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시설비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돼지고기의 전면수입 개방에 대비해 향후 연도별 자급률을 정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이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돈사신축이 어렵고, 생산비가 높은 상태에서 돼지고기 수입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시장이 급속히 외국산 돼지고기로 잠식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연도별 돼지고기 자급률을 사전에 정하고,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토지와 산지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축사건축 규제도 대폭 해제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담보가 부족한 농가를 위해 신용대출제도와 후취담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원금리는 내리고 기간은 연장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산업 종사자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WTO체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임승차자가 없는 방향으로 조속히 자조금제도를 법제화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검역제도를 강화해 질병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양돈장의 방역위생에 종합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친애하는 양돈인 지역 대표자 여러분!

이상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하여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돈인들이 현재의 난국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강인한 의지와, 변화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의식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내 양돈에 안주하던 타성에서 과감히 벗어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양돈경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양돈업계의 모든 역량을 협회로 집결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종필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최인기 장관님과 여러 국회의원님 내빈께서도 우리 양돈농민들의 숙원사항이 한시바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입니다.

감사합니다.